건설동향브리핑

제499호 (2015. 2. 23)

■ **정책 · 이슈**

· 2014년 건설업 취업자의 직종 및 연령 구성 변화 분석

· 건설공사 손해보험 재보험 시장의 개편 방안

■ **경영 · 정보**

· 관광 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

■ **경제 동향**

· 2014년 국내 건설수주 전년비 17.7% 증가한 107.5조원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입찰담합 근절로 신뢰의 건설산업으로 재탄생하기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2014년 건설업 취업자의 직종 및 연령 구성 변화 분석

- 기능인력 고령화 심각하지만 속도는 둔화, 기술인력 고령화는 가속화 -

- 2014년 12월 현재 건설업 취업자는 약 183.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2,538만 여 명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수치는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의 절대적인 수치와 비중을 의미하며, 건설업 취업자는 다시 다양한 직종과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4년에는 기능인력의 고령화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속도가 둔화된 반면, 기술인력의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음.

■ 건설업 취업자의 직종별 변화

- 통계청의 9개 직종 분류에 따르면, 2014년 12월 현재 건설업 취업자가 가장 많은 직종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로서 약 89.3만 명(48.6%)이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이 단순 노무 종사자로서 25.1만 명(13.7%)이 속해 있음.
  - 여기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를 합친 건설 기능인력은 약 133.1만 명에 이르며, 건설업 취업자 중에서 72.4%를 차지함. 건설 기능인력 외에 비중이 높은 직종으로는 사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등이 있음.

<건설업 취업자의 직종별 추이(각 연도 12월 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취업자 수	%	취업자 수	%	취업자 수	%	취업자 수	%	취업자 수	%	취업자 수	%
관리자	100,945	5.9	96,410	5.6	89,170	4.9	80,031	4.6	67,880	3.9	73,706	4.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61,780	9.5	163,852	9.5	175,902	9.6	167,810	9.6	178,862	10.2	172,597	9.4
사무 종사자	238,739	14.0	203,522	11.8	223,887	12.2	220,509	12.6	234,432	13.4	239,624	13.0
서비스 종사자	-	-	1,468	0.1	1,997	0.1	1,497	0.1	423	0.0	2,256	0.1
판매 근로자	21,441	1.3	18,517	1.1	24,247	1.3	18,843	1.1	15,703	0.9	12,564	0.7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7,197	0.4	7,912	0.5	9,421	0.5	5,032	0.3	7,037	0.4	6,462	0.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59,571	44.7	795,094	46.1	859,441	46.9	823,214	47.0	803,063	45.8	893,114	48.6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9,227	8.8	153,948	8.9	156,738	8.6	177,425	10.1	175,315	10.0	186,163	10.1
단순 노무 종사자	261,849	15.4	285,430	16.5	290,880	15.9	255,444	14.6	272,032	15.5	251,376	13.7
계	1,700,749	100.0	1,726,153	100.0	1,831,683	100.0	1,749,804	100.0	1,754,747	100.0	1,837,863	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12월 기준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연령 변화

- 2014년 12월 현재 40대가 33.8%로 가장 많고, 30대가 29.1%, 50대가 19.5%, 20대가 13.5%를 차지해 전년에 비해 30대와 40대의 순위가 바뀌었음. 40대 이상 구성비는 57.4%임. 전년 대비 약 5,000명이 감소함.
  - 2011년부터 고령화 속도가 급상승하고 있어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함.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연령대별 추이(각 연도 12월 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취업자 수	%	취업자 수	%	취업자 수	%	취업자 수	%	취업자 수	%	취업자 수	%
20대 미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0대	29,671	18.3	24,728	15.1	31,548	17.9	20,750	12.4	18,301	10.2	23,375	13.5
30대	74,342	46.0	76,207	46.5	59,113	33.6	54,000	32.2	65,649	36.7	50,156	29.1
40대	39,425	24.4	45,335	27.7	54,066	30.7	62,151	37.0	56,497	31.6	58,408	33.8
50대	14,418	8.9	11,104	6.8	25,914	14.7	22,878	13.6	26,602	14.9	33,699	19.5
60대 이상	3,925	2.4	6,478	4.0	5,261	3.0	8,030	4.8	11,813	6.6	6,960	4.0
계	161,780	100.0	163,852	100.0	175,902	100.0	167,810	100.0	178,862	100.0	172,597	100.0
40대 이상	57,768	35.7	62,917	38.4	85,241	48.5	93,059	55.5	94,912	53.1	99,067	57.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12월 기준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연령 변화

- 2014년 12월 현재 50대가 35.2%로 가장 많고, 40대가 32.4%, 30대가 14.7%, 60대 이상이 13.0%를 차지하고 있음. 40대 이상 구성비는 80.6%로 전년 대비 0.9%p 감소했음.
  - 고령화 정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나, 처음으로 고령화 속도가 둔화된 모습임.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연령대별 추이(각 연도 12월 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취업자 수	%	취업자 수	%	취업자 수	%	취업자 수	%	취업자 수	%	취업자 수	%
20대 미만	0	0.0	0	0.0	417	0.0	1,334	0.2	655	0.1	427	0.0
20대	44,765	5.9	29,673	3.7	37,898	4.4	32,335	3.9	32,060	4.0	41,113	4.6
30대	156,865	20.7	148,285	18.7	146,658	17.1	129,243	15.7	115,796	14.4	131,535	14.7
40대	290,698	38.3	285,619	35.9	310,255	36.1	284,798	34.6	272,103	33.9	289,463	32.4
50대	220,970	29.1	274,647	34.5	299,905	34.9	297,647	36.2	296,256	36.9	314,802	35.2
60대 이상	46,273	6.1	56,830	7.1	64,308	7.5	77,858	9.5	86,193	10.7	115,774	13.0
계	759,571	100.0	795,054	100.0	859,441	100.0	823,214	100.0	803,063	100.0	893,114	100.0
40대 이상	557,941	73.5	617,096	77.6	674,468	78.5	660,302	80.2	654,552	81.5	720,039	80.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12월 기준

심규범(연구위원 · gbshim@cerik.re.kr)

건설공사 손해보험 재보험 시장의 개편 방안

- 재보험 시장 경쟁 제고 방향으로 전환해야 -

■ 건설공사 손해보험 손해율, 타 손해보험에 비해 낮아

- 2003~12년 10년 간 건설공사 손해보험의 손해율은 건설공사보험이 46.3%, 조립보험이 30.3%로 나타나 통상적으로 70~80%를 기록하는 다른 손해보험에 비해 낮음. 이는 건설공사 손해보험의 재보험 시장 구조로 인해 야기된 현상으로 판단됨.

■ 건설공사 재보험 시장 현황

- 건설공사 손해보험의 원수보험사는 보험요율 구득시 해외 재보험사도 가능하지만 국내 재보험사인 Korean Re가 구득하고 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Korean Re가 재보험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음.

- Korean Re의 경우 인수한 위험의 보유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재보험 수재로 인수한 대부분(약 80%)을 해외 재보험사에 다시 가입하는 등 재재보험을 통해 해외에 출재하고 있음(<표> 참조).

<건설공사 손해보험 보유 및 출재 현황(2012. 4~2013. 3)>

(단위 : 억원)

구분	국내 손보사 전체	국내 재보험사 (Korean Re)	국내 진출 해외보험사
원수보험료(A)	3,252	-	40
수재보험료(B)	104	1,817	55
합계(C=A+B)	**3,356**	**1,817**	**95**
보유보험료(D)	1,043	337	22
출재보험료(E)	2,310	1,477	71
합계(F=D+E)	**3,353**	**1,824**	**93**

주 : 1) 보험개발원 보험통계를 이용하여 기술보험(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기계보험 등의 합계)의 보험료로 추정
2) 원수보험료와 수재보험료를 합한 수치(C)와 보유보험료와 출재보험료를 합한 수치(F)가 동일하여야 하나, 추정시 반올림 관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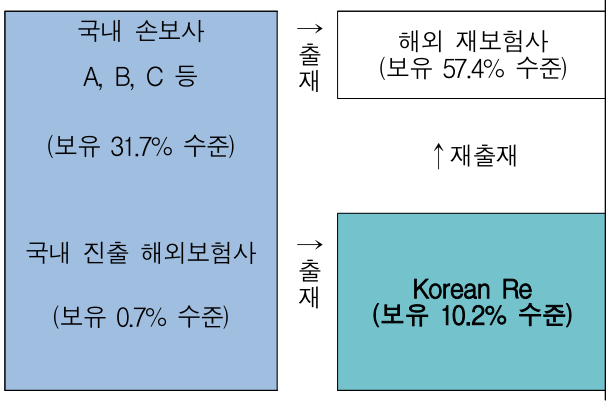
- 건설공사 손해보험은 해외로 출재되는 비율이 약 60% 수준(2003년 기술보험 기준 약 58.1%)으로 타 손해보험보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손해보험 전체로는 총인수 보험료의 약 44%를 해외 재보험사에 출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금융감독원 재보험 실적분석 보도자료, 2012년 6월).

- 2012 회계연도 기준 국내 손해보험회사와 국내에 진출한 해외 손해보험사의 원수보험료는 3,292억원임(3,252억원+40억원=3,292억원). 이 중 국내 손해보험회사가 1,043억원(31.7%)을 보유하고, 국내 진출 해외 보험사는 22억원(0.7%)을 보유함.
- 국내 재보험사인 Korean Re는 337억원(10.2%)을 보유하고, 나머지 1,890억원(57.4%)은 해외 재보험사가 보유함.
- 따라서, 해외 재보험사와 국내에 진출한 해외 보험사가 보유하는 보험료는 1,912억원으로 전체 원수보험료의 58.1%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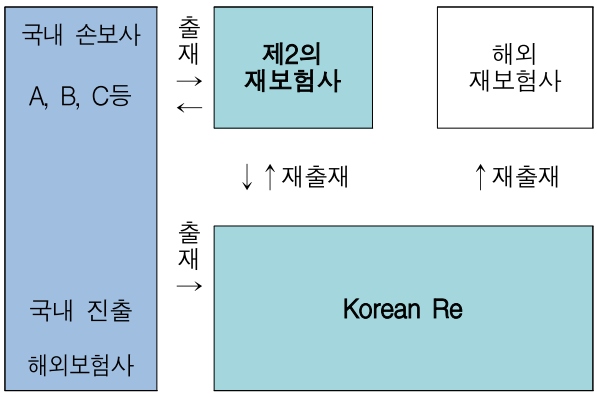
■ 건설공사 재보험 시장 개선 방안

- Korean Re가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재보험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건설공사 손해보험의 해외 출재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재보험 수지 적자로 국부가 유출될 뿐만 아니라, 원수보험자의 요율 협상력이 낮아 국내의 낮은 손해율을 요율에 반영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건설공사 손해보험에 국한하여 재보험 시장을 Korean Re 외의 새로운 재보험사를 포함하는 경쟁체제로 전환하여야 함(아래 그림 참조).

<현행 건설공사 손해보험 재보험 시장 구조>



<건설공사 손해보험 재보험 시장 구조 개편안>



- 현재 보험 가입 금액이 1,500억원 이상인 경우 재보험자 협의 요율을 사용하게 하고 있는 규정을 단계적으로 보험 가입 금액이 2,000억원 또는 2,500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손해보험에 대해서만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하게 하고, 그 이하의 경우 모두 인가요율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의섭(연구위원 · eslee@cerik.re.kr)

관광 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1)]

-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와 기술 금융 및 벤처 투자 지원 확대 -

■ 첨단 · 유망 서비스 산업 중심의 혁신형 기업 입지환경 조성

- 첨단 · 유망 서비스 산업 중심의 혁신형 기업 입지환경을 조성할 경우 총 5조원 이상의 직접투자 효과가 기대됨.
  - 우수한 기술,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기 위해서는 기술금융(Technology Financing)과 벤처 투자의 확대가 필요
  - 기술신용평가의 품질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모험자본 육성과 함께 벤처기업 투자 확대 및 투자회수(Disinvestment)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형 기업을 지원

■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국토교통부가 직접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1.5조원 규모)
  - 한국도로공사 이전 부지와 인근 그린벨트 해제 용지 등을 활용하여 43만㎡ 규모로 조성(판교 테크노밸리의 2/3 수준)
  - IT, 문화 컨텐츠 등 신산업 중심의 복합 산업 공간, 호텔 · 컨벤션센터, 공공 · 기업 연구소 용지 등을 조성
  - 연구 기관, 기술인증 기관 및 금융 · 법률 서비스 업체 등이 입주하여 기업의 혁신역량 개발을 지원
  - 2015년 3월에 관계부처 TFT를 구성하여 정부 지원책을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수요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
  - 2016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지정 및 공사착공을 거쳐 2017년 상반기에 분양

■ 지역별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 지구 선정

- 산업기반, 주변 환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 산업 맞춤형으로 조성(3조원 규모)[2)]

---

1) 2015년 1월 19일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음.
2) 2014년 3월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1차 지구 선정이 이루어짐. 1차 지구는 인천(남동공단 연계), 대구(율하신도시 연계), 광주

- 첨단 산업(첨단 자동차, 그린 에너지, 문화 산업 등)과 관련 서비스업을 집적하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개발
- 2016년에 상반기 산업단지 지정을 거쳐 2018년 중 착공 및 분양할 계획

지역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 지구 개발 구상
대전 유성	▪ 바이오 · ICT 등 첨단산업 유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
울산 중구	▪ 자동차 관련 특화산업, 에너지산업 유치
경기 남양주	▪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신재생에너지 중심 첨단 산단
경북 경산	▪ IT 융합 · LED 융합 등 첨단산업과 R&D 중심 클러스터
전남 순천	▪ 광양만권 R&D, MICE[3], 기업서비스 거점
제주	▪ 시스템 · SW 개발업 등 IT기업 · 문화중심 첨단 산단 조성

자료 : 기획재정부,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보도자료, 2015. 19.

■ 기술금융 공급 규모 대폭 확대

- 기술금융 공급 규모를 2014년 8.9조원에서 2015년에는 2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

- 기술금융 인프라의 보강 등을 통해 기술신용평가 시스템의 품질 및 활용도를 제고
  - 기술평가 인프라 간 정보공유 · 연계를 강화, 비은행 부문(자산운용사 등)과 정부지원사업(R&D 사업, 정부 조달 등)에서도 기술금융 시스템을 활용
  - 기업의 기술신용평가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평가를 거친 신용대출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
  - 기술평가 기반 모험자본 육성(4,000억원 규모 신규펀드 조성)

- 조속한 투자집행을 위해 모태 · 성장 사다리 펀드 운용사의 인센티브 구조 및 운용사 선정기준 개편
  - 실제 투자액을 기준으로 펀드 운용사의 보수 설정
  - 창업 초기 기업, 보통주 등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운용사를 우대

- 한 · 중 FTA(Free Trade Agreement)를 활용한 벤처 기업의 중국 진출 지원을 위한 '중국진출 펀드'(5,000억원 규모) 신규 조성

나경연(연구위원 · econa@cerik.re.kr)

(광주 과기원 연계)임.

3) MICE는 기업 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 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 & Event)의 약자로서 좁은 의미에서 국제 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 산업을 뜻하며, 광의적 개념으로 참여자 중심의 관광과 이벤트 등을 포함한 융 · 복합산업을 의미함.

2014년 국내 건설수주 전년비 17.7% 증가한 107.5조원

- 공공수주 12.6% 증가, 민간수주 21.0% 증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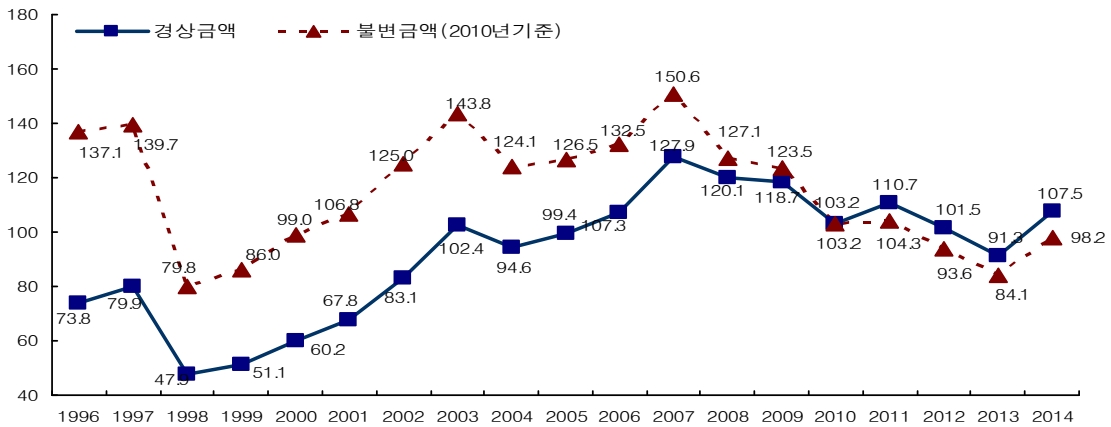
■ 2014년 건설수주, 1년 만에 100조원대 회복

- 2014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7.7% 증가한 107.5조원을 기록, 지난 2013년 91.3조원 이후 1년 만에 다시 100조원대를 회복함.
  - 건설수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위축, 지난 2011년에 7.3% 반등한 것을 제외하고 6년 간 장기적으로 감소함. 특히, 2013년 수주는 민간 부문의 침체로 11년 내 최저치인 91.3조원에 불과해 매우 부진하였음.
  - 2014년 들어 107.5조원을 기록하여 다시 100조원대를 회복하였으며, 최근 3년 내 가장 양호한 실적을 기록함.
  - 다만, 201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는 지난 2000년의 99.0조원과 비슷한 98.2조원에 불과해 예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2014년 수주가 회복한 것은 공공이 예년보다 양호한 가운데 민간 부문이 건축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 발주자별로 공공 수주는 전년 대비 12.6% 증가한 40.7조원을 기록함.
  - 민간 수주는 전년 대비 21.0% 증가한 66.7조원을 기록함.

<국내 건설수주 추이>

(단위 : 조원)



자료 : 대한건설협회

■ 공공 수주 : 전년 대비 12.6% 증가, 역대 세 번째로 높은 40.7조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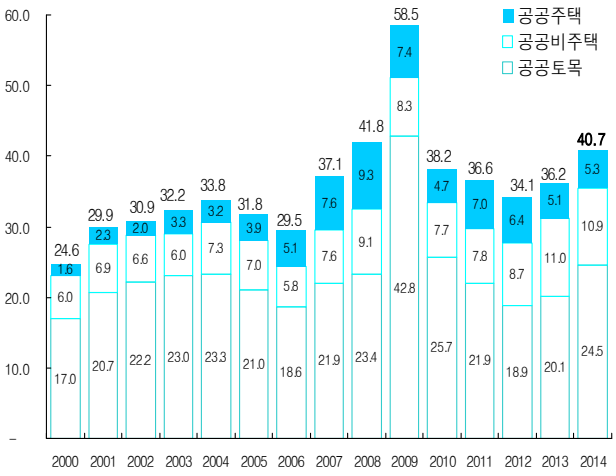
- 공공 수주는 전년보다 12.6% 증가한 40.7조원으로 역대 세 번째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함.
  - 토목수주는 전년 대비 22.3% 증가, 역대 두 번째로 양호한 24.5조원을 기록함.
  - 주택수주는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한 5.3조원을 기록함. 정부의 공공주택 물량 조절 방침에 의하여 지난 2013년의 5.1조원과 비슷한 실적을 보임.
  - 한편, 비주택 건축수주의 경우 비록 전년 대비 1.0% 감소하였지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인 10.9조원을 기록해 금액상으로는 양호하였음. 행복 및 혁신도시의 정부청사 이전 관련 공사 발주가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판단됨.

■ 민간 수주 : 전년 대비 21.0% 증가, 주택수주 7년 내 최대

- 민간 수주는 토목이 부진하였지만, 건축이 양호해 전년 대비 21.0% 증가한 66.7조원을 기록함.
  - 토목수주는 전년 대비 16.7% 감소한 8.2조원으로 12년 내 최저치를 기록함.
  - 주택수주는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증가하고, 신규 주택수주 또한 양호해 전년 대비 47.8% 증가한 35.8조원을 기록, 지난 2007년 50.6조원 이후 7년 내 최대치를 기록함.
  - 비주택 건축수주는 전년 대비 7.8% 증가한 22.7조원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임.

<공공 건설수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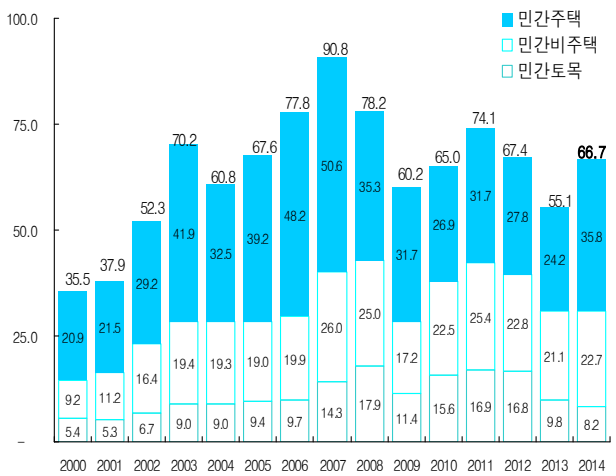
(단위 : 조원)



자료 : 대한건설협회

<민간 건설수주 추이>

(단위 : 조원)



자료 : 대한건설협회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2. 9	국토교통부	● 기술정책과 주최, '일자리 창출 대책 수립을 위한 T/F팀 킥오프 미팅'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실장 참여 - 운영방안 등 협의
	국토교통부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주최, '제119차 조정소위원회'에 건설관리연구실 이영환 연구위원 참여 - 분쟁 조정 협의

■ 연구직원 모집

- 연구원은 건설 제도 및 정책 연구자(법학박사 학위 소지자 및 취득 예정자, 또는 실무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논문 발표 가능자) 및 건설관리 연구자(박사학위 소지자 및 취득 예정자로 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출신의 건설관리 전공자)를 모집
- 채용 직급 : 연구위원급
- 전형 절차 및 서류 제출 기한 : 1차 서류 심사, 2차 연구 발표 및 면접, 2015. 2. 27(금)
- 문의 및 참조 : 업무지원팀(02-3441-0671), 홈페이지(www.cerik.re.kr)

■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과정」 1차 개설

- 기간 및 장소 : 2015. 4. 21(화)~23(목), 건설회관 9층 연수실
- 교육 대상 : 관련 실무자, 유관기관 및 단체 임직원
- 교육 과정 : 민간투자사업(BTO/BTL)에 대한 이해와 추진 전략, 사업성 분석 및 제도 등
- 문의 및 참조 : 기업지원팀 교육 담당(02-3441-0691, 0848), 홈페이지(www.cerik.re.kr)

■ 「CERIK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연구원은 건설산업 관련 연구보고서 및 CERIK저널, 건설동향브리핑 등의 연구 결과물을 제공하는 '도서회원제'를 운영. 도서 회원에게는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연구보고서와 자료 등을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으며, 수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문의 : 기업지원팀(Tel. 02-3441-0848)

입찰담합 근절로 신뢰의 건설산업으로 재탄생하기기를

최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의 입찰담합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법 혐의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건설업체 영업부장들의 공구에 대한 정보 교환을 한 사실만으로는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이 소송결과는 지난해 집중 적발된 공공공사의 입찰담합 사건들에 대해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정부는 공공공사 입찰담합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당면한 입찰담합 관련 논쟁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공공공사의 입찰담합은 모두 18건으로 입찰담합 건설업체에 부과한 과징금만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으로 약 8,000억원에 이른다. 또 관련 건설업체들은 최장 2년 간 공공공사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제재를 받은 건설업체만 69개 사에 이르고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100개 사 중 절반 이상이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공사에 있어 입찰담합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형 공공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으로 인해 신문지상에 대형건설업체들의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는 부지기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몇 십년동안 공공공사의 계약관련 법률과 입찰담합을 제재하는 법률도 지속적으로 개정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담합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18건 중 15건이 2009년 한해 발주된 대형 건설공사들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공공공사 입찰담합은 건설산업 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온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공사의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나 입찰과정에 대한 절차적, 결과적인 제도 개선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입찰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사고의 전환과 기업 차원의 전반적인 제도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 건설기업은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시장의 여건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사고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중복적이고 과도한 제재라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제재 일변도의 정책 강화보다는 산업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산업 전반의 정책·제도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건설문화의 변화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2015년에는 건설산업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찰담합과 같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잘못된 건설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는 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아주경제, 2015. 2. 4>**

김영덕(연구위원·ydkim@cerik.re.kr)